

# 전쟁은 왜 반복되는가... 인간 본성으로 읽는 세계 전쟁사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인류 전쟁의 시작이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당시에는 풀이나 자연도구로 위해를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맞물려 상대를 죽이는 전쟁의 무기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내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소장이 펴낸 '이달의 전쟁사'는 일 년 열두 달에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명예교수인 저자는 '전쟁과 문명',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 등을 펴냈으며 '군사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책은 '국방과 기술'에 연관된 글을 퇴고해 묶은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역사적 전쟁과 24개 장면을 소환했다.

저자는 2월의 장면에서 냉전의 기화가 된 '알타회담'을 꼽았다. 연합국 승리가 확실했던 45년 2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3국 정상이 크림반도 알타에서 테이블에 앉았다.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적대국 독일문제,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회담 종료 후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 알타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유화적 양보로 이권을 쥔 소련이 세력을 확대한 것이다. 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당초 합의를 배제한 채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넓혀간다. 미소를 중심으로 한 대립은 이후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세계적인 화약고 가운데 하나가 가지자구다. 국토 면



적이 고작 2만7700km에 인구는 1000만뿐인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에 둘러싸여 있지만 건재한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국민들은 48년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웠다. 당초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기원전 70년경 로마제국에 의해 쫓겨난다. 이곳저곳으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19세기 후반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우자는 시온주의를 전개한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파시즘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곳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은 급기야 난민으로 전락했고 '반영국·반유대인'을 기치로 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고착화된 양측의 갈등은 지금도 현재진형이다. 제1차 중동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전에는 그와 같은 골 깊은 갈등의 역사가 자리한다.

이밖에 책에는 독일 통일, 이라크 전쟁, 미국 남북전쟁, 칸나에 전투,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 일본의 진주만 공습, 보스턴 차 사건 등 세계 각지의 전쟁들이 망라돼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참혹할수록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낳았다.

저자가 전쟁과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맥락을 간직하며 후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씨)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41년 8월 대서양함대 중 영국 전함 함상에서 열린 일요일 예배. 루스벨트와 처칠이 참석한 이 예배는 '대서양헌장'이 발표된 회담의 일부였다. 회담은 크비리에 진행됐다.



## 나를 보고 단것에 미쳤다고 하든 말든

강혜신 지음

일반적으로 한시라고 하면 어렵고 재미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한문이 어려운데다 난해한 고어가 쉽게 한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한시의 매력에 빠진 이들은 한시에 대한 예찬을 한다. 옛 선인들의 깊은 사유와 고전적 감성, 새로운 의미 등을 다 각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 가운데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제목부터 이색적인 '나를 보고 단것에 미쳤다고 하든 말든'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음식에 관한 글을 담았다. 김려,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 윤선도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필가들의 입맛을 훑친 음식과 음식을 둘러싼 에피소드 등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성신여대 국문과 강혜신 교수로, 지금까지 '한시 러브레터', '여성 한시 선집', '유배객, 세상을 알다' 등을 펴냈다.

조선의 선비들과 문장가들이 남긴 글에는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쉼박지, 굴취쌈, 고추 요리, 오이장아찌, 매운탕, 토하젓, 미역국, 닭고기 등 현대인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옛 사람들도 오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 최고의 글쟁이라 평가받는 김려는 씹을 좋아했다. 상추와 굴취를 모티브로 한 시는 입맛을 돋우게 한다. "입을 찹 벌리고 우적우적 먹고서/ 배가 불러 복쪽 창 아래 누우면/ 이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지"라고 노래했다.

상추와 굴취 씹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좋아한다.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담백하면서도 소박한 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유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선 회화의 새로운 마스터피스

이태호 지음

조선 회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해석을 살짝 틀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 나왔다. 미술사학자 이태호 교수가 새롭게 발굴한 작품과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회화사를 다시 읽어낸 '조선 회화의 새로운 마스터피스'다.

책은 이미 잘 알려진 명작을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찰과 가문, 개인 소장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된 작품들을 문헌과 현장 답사로 교차 검증하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남 대학박물관 관장 등을 지내며 오랜 시간 조선 회화 연구를 이어온 미술사학자다. 특히 그림 속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답사 중심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은 작품의 제작 배경과 회화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책은 겸재 정선,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 등 조선 후기 거장들의 작품 가운데 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화첩과 초상, 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세황의 진경산수 화첩인 '두운지정화첩', 김홍도의 안기찰방 시절 작품과 승려 초상, 신익성의 산수와 초상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 회화의 제작 환경과 미감, 작가 관계망을 재조명한다.

특히 2024년 대중에 처음 공개된 강세황의 '두운지정화첩'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현장성과 문인 취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소개된다. 부채 형식의 화면에 담긴 집과 주변 풍경, 대나무와 괴석 등의 소재는 당시 문인 문화의 미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홍도가 그린 승려 초상 '풍암당 진영' 또한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안정된 구성을 통해 초상화 영역에서 김홍도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마지막 홍콩배우 양조위

주성철 지음

1990년대 홍콩영화는 범죄와 멜로, 액션이 뒤섞인 다양한 이야기와 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독특한 낭만을 만들어냈다. 네온과 골목, 빠른 편집, 쓸쓸한 사랑 이야기가 뒤섞인 그 시절의 분위기는 많은 관객에게 '이것이 바로 홍콩영화'라는 기억을 남겼다.

그 시대의 홍콩영화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니 네온 아래를 걷던 남자, 말보다 긴 침묵으로 감정을 남기던 배우 양조위다. 영화평론가 주성철의 신간 '마지막 홍콩배우 양조위'는 한 배우의 연기 인생을 따라가며 홍콩영화의 황금기와 그 이후의 시간을 함께 기록한 평전이다.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계기로 펴낸 책이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한 배우를 통해 살펴보는 홍콩영화의 기억을 되짚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전작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을 통해 홍콩영화의 감성을 조명했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그 시대의 공기를 간직한 배우 양조위에 주목한다. TVB 시절 청춘스타로 출발해 왕가위 영화에서 고독과 침묵의 미학을 완성하고 이후 장르 영화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진 40여 년의 필모그래피는 홍콩영화 산업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책은 어린 시절과 TV 드라마 시기를 거쳐 영화배우로 자리 잡는 과정, 허우샤오시엔과 오우상 등 거장들과의 작업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한 시기, 왕가위 감독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배우로서의 정체성, 2000년대 이후 국경을 넘는 배우로 활동하는 현재까지를 4부로 나눠 정리한다. 풍부한 인터뷰와 제작 현장 이야기, 필모그래피 분석이 더해져 배우 개인의 서사와 영화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참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